| 불자 세상보기 |

미세먼지, 바라만 보고 있을건가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매년 봄 찾아오는 미세먼지
이젠 삶을 위협하는 '환경난제'
원인은 중국 · 국내 모두 있어

한국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예산 감축 '말잔치' 불과
화력발전, 20기 추가 건립 예정

종교 기후변화 대응 불교 '꼴찌'
불교, 재생에너지 도입 고민해야

봄은 춥지도 덥지도 않고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시냇물은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른다.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즐겁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연이 선물한 봄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있다. 바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때문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중국 발 미세먼지이든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이든 우리 정부가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지난해 6월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특별대책이라는 것이 말잔치에 불과했다.

미세먼지 관련 올해 정부 예산을 보면 낡은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조기 대체하기 위한 예산은 11.8%,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예산은 30.9%나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낡은 발전소 10기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폐기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SK의 당진에코파워 발전소가 주민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에도 승인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20기의 신규 발전소가 건립될 계획이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한국은 2015년 파리기후총회에 참여하면서 2030년 BAU(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대비 37% 라는 자발적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런데 올해 3월 중순 OECD에서 발간된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대비 2013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9% 증가하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전기를 절약하고 가정에서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종교환경회의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종교간 대화마당을 진행했다. 발표 자료 중에는 종교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제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불교만 유난히 낮게 나타났다. 이웃종교인 원불교에서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태양광전기를 사용하는 교당이 100곳을 넘었다는 발표도 있었다.

불교환경연대는 몇 년 전부터 에너지공단 경기본부와 사찰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감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을 한 사찰은 없다. 생명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불교의 관점으로 볼 때,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와 불안한 미래의 후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종단에서는 사찰에 맞는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찰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도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또 불자들은 이웃주민들과 마을마다 햇빛발전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온전한 봄을 다시 선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社說

고요한 소리 30주년의 의미

30년. 사람으로 따지면 청년의 시기다. 공자는 〈논어〉에서 30세를 '이립(而立)'이라고 했다. 학문의 근본을 세워 나아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고요한 소리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4월 15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창립법회와 중도포럼이 개최됐다. 1987년 활성 스님이 중심이 돼 창립한 (사)고요한 소리는, 30년 동안 불교 경전 원전 번역이라는 대작불사를 수행해 왔다.

기실, 1980년대 한국불교에서 초기불교는 불모지와 같았다. 초기불교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원음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필요했다. (사)고요한 소리는 근본불교 대장경인 빠알리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불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스리랑카 불자출판협회(BPS)에서 간행한 양질의 불서 및 논문들을 국내에 번역 · 소개하고 있다.

30년 동안 △금구의 말씀 △소리 △법륜 △보리수잎 등 4개 시리즈를 통해 81권의 책이 출간됐다. 이들 책자들은 초기불교는 물론 불교실천론, 응용불교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였다. 특히, 초기불교 · 근본불교가 한국불교계에서 대중화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창립기념법회에서 (사)고요한 소리 창립자이자 회주인 활성 스님은 첫 대중 법문을 통해 중도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은 처(處)와 도(道)를 구분했다. 처는 집이고 도는 집을 벗어나서 향상일로를 걷는 것이다. 향상의 삶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사)고요한 소리의 나아갈 길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바로 '향상의 삶'이다. 나를, 이웃을, 사회를 향상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사)고요한 소리의 나아갈 방향이다. '향상일로'의 (사)고요한 소리를 기대한다.

차별없는 세상, 이주민 인식 개선부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주민 단체들이 각기 봉축법회를 열고 있다. 인천 황룡사의 베트남 불교법회, 캄보디아불교센터의 쫄쯔남 축제, 서울네팔법당과 양주 마하보디사의 봉축법회 등이 그것이다. 평택 마하위하라 사원에 다니는 스리랑카 불자들은 5월 7일 예정된 봉축법회에 사용될 전통등을 6개월째 준비하고 있다니 이들에게 불교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00만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의 수는 2050년까지 600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측도 있다.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언어의 장벽은 물론 풍습과 문화의 차이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3D직종의 험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배척당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은 물론 의료 ·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해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학교에 가도 따돌림을 받는 이들이 태반이다.

심지어 사찰에서도 마찬가지다. 법회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찰 참배에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시며 모든 중생의 평등과 화합을 외치셨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지금, 불자 이주민들을 비롯해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첫 걸음은 '차별없는 시선'이다. 모두가 화합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불제자들의 화두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자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문수지혜도 바보 셋 모여야 나와

2017년 조계종 첫 사부대중공사가 끝났다. 3년차에 접어든 대중공사는 초창기에 비해 규모를 많이 축소했다. 그간 위원들의 낮은 출석률을 감안할 때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백년대계본부 출범과 함께 힘차게 문을 연 대중공사는 극심하게 낮은 출석률로 '올해 첫'이라는 의미를 무색케 했다. 오전에 진행된 출범식에는 100여 위원 중 8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지만 정작 중요한 토론에 절반만이 참여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심지어 한 모둠은 5명밖에 모이지 않아 다른 모둠과 통합해 토론해야 했다. 6개 모둠별 배정인원이 15명 이상이니 충격적인 참석률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더욱이 몇몇 위원은 모둠토론 중간에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뜨기도 하면서 흐름이 끊기는 일도 있었다. 결국 종합토론에는 40여 명의 위원들만 자리를 지켜 텅 빈 회의장이 연출됐다.

이 때문에 행사 말미에는 저조한 참석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구에서 올라온 현각 스님은 "지방에서 올라올 때는 큰 기대를 갖는데 내려갈 때는 허전한 마음을 안고 간다. 대중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대중공사는 한국불교가 살아갈 길을 열어가는 자리다. 보통자리가 아니다. 결코 빠지지 않겠다는 원력 없이는 조계종이든 한국불교든 바꿀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 역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인원 차이가 크다.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고심한 내용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대중공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번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스님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이 사부대중공사에 며칠 앞서 비슷한 주제로 열린 종단주요소임자 대중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할까? 그렇다면 차라리 사부대중공사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이 더 적합했을 것이다.

2015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시작하며 대중이 낭독한 발원문에는 여법한 토론을 위해 "온전히 하루를 비우자"는 내용이 담긴 '동참자의 약속'이 명시돼 있다. 물론 지금의 발원문에서는 빠진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니리라.

'바보 셋이 모이면 문수지혜가 생겨난다.' 사부대중공사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이기도 한 이 문장은 바꿔 말하면 문수지혜가 생겨나기 위해선 일단 바보 셋이 모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하고, 백년대계를 모색하려면 대중이 뜻을 모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출석률로 과연 문수지혜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사부대중공사는 분명 한국불교계 토론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부대중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상대방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에 밑바탕이 됐다. 적극적으로 대중공사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이에 대해선 높게 평가하며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운다. 물론 토론시간 부족이나 광범위한 주제, 제도화 미흡 등 지적도 뒤따르지만 이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위원들의 의지가 아닐까.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고작 3년차에 동력이 떨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육임 직접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월령도 } 각 60만원
주역, 명리, 성명학 – 각 40만원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 연 정 사 운암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오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 1실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2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2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7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 녀 평생 모십니다.
• 1인 1실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 입주시 1천만원
• 부부실 :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4천만원 입주시 3천만원
【 1층 – 부부 4쌍 8분 / • 2층 – 거사님 4분 】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괘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